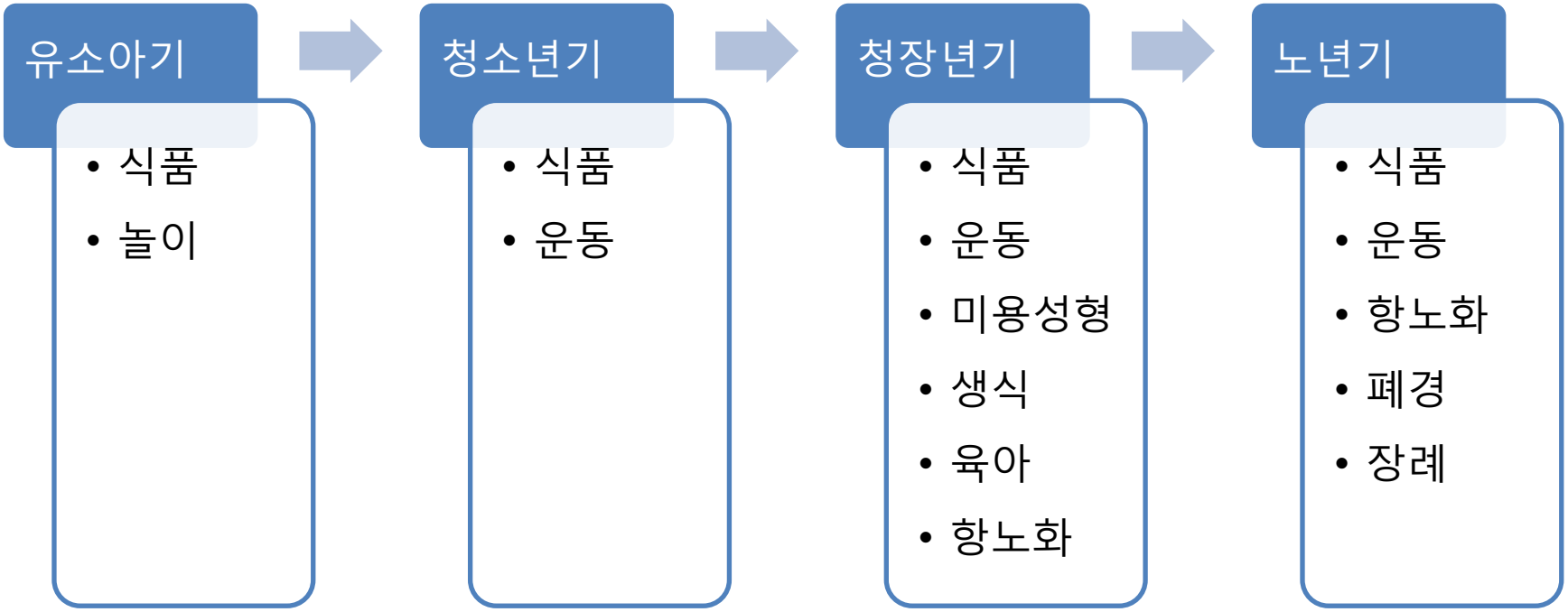
생명/건강/웰빙 산업과 자본의 전략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 상 윤

생명/건강/웰빙 산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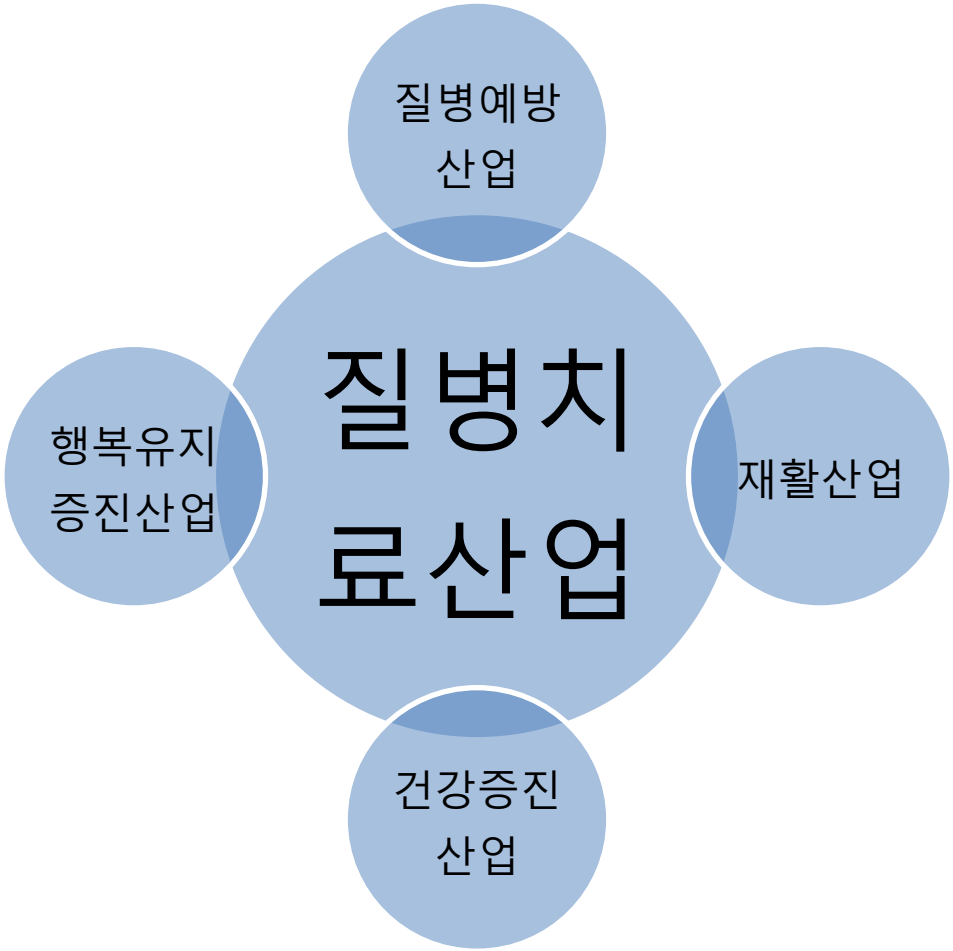
-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질병 예방, 질병 치료, 재활, 건강증진, 행복(안녕)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화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산업
-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되, 국가 혹은 사회에 의해 공급, 배분되는 체계는 제외

생애주기별 생명/건강/웰빙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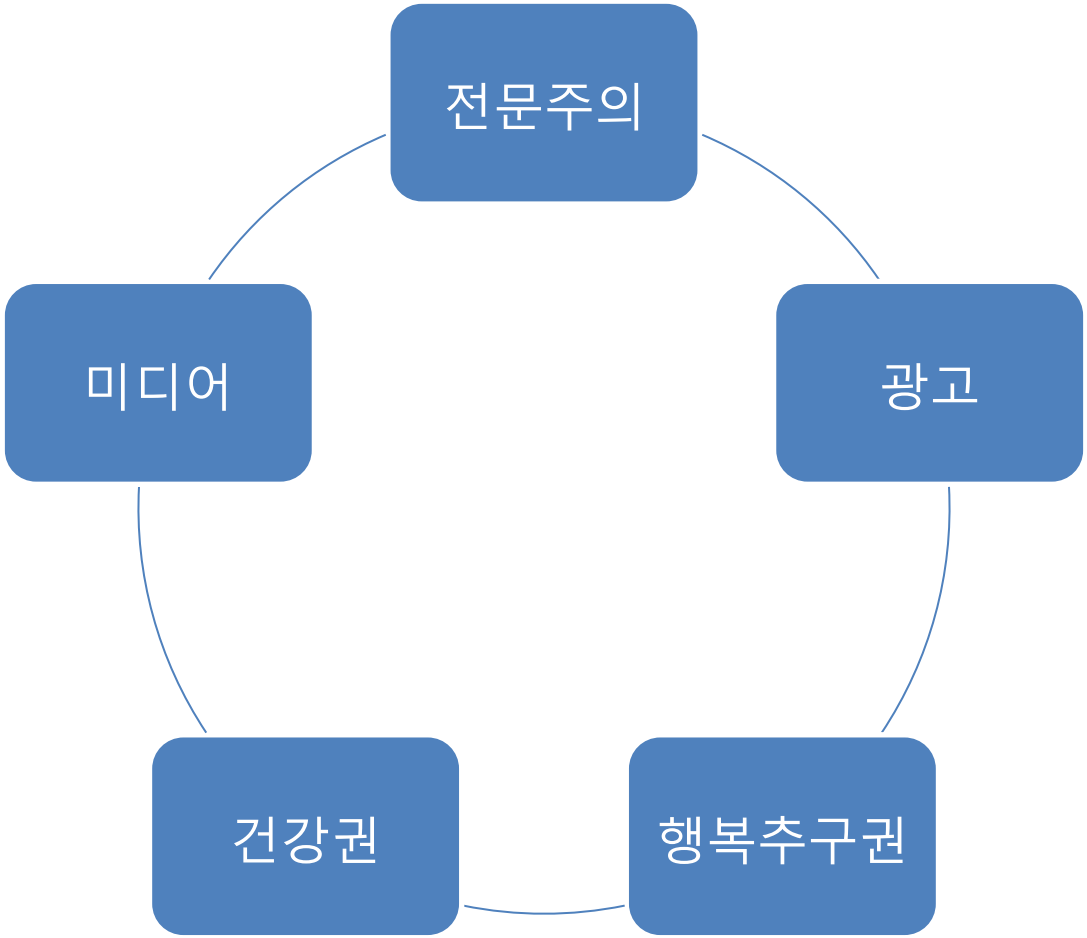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보험, 돌봄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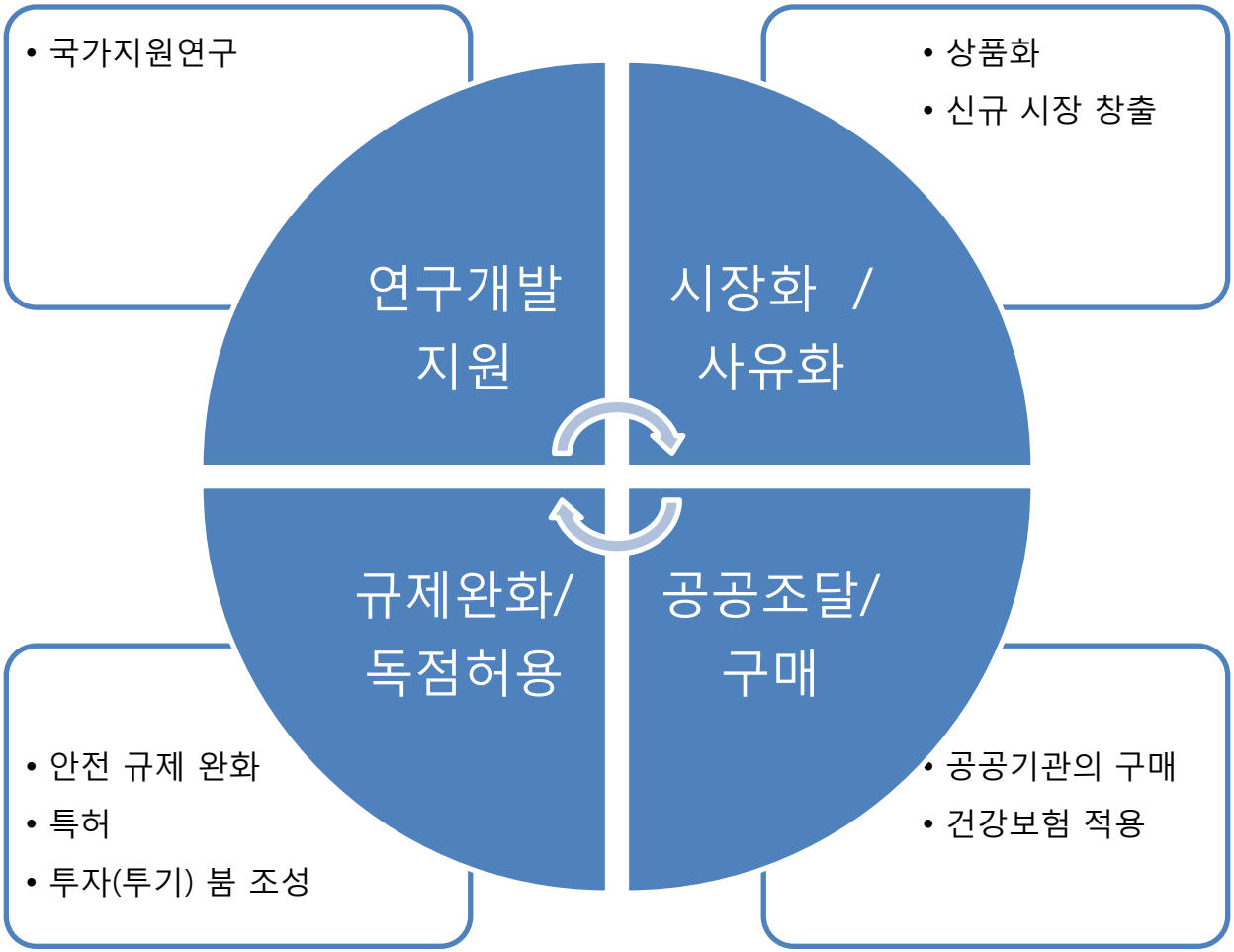
영역별 생명/건강/웰빙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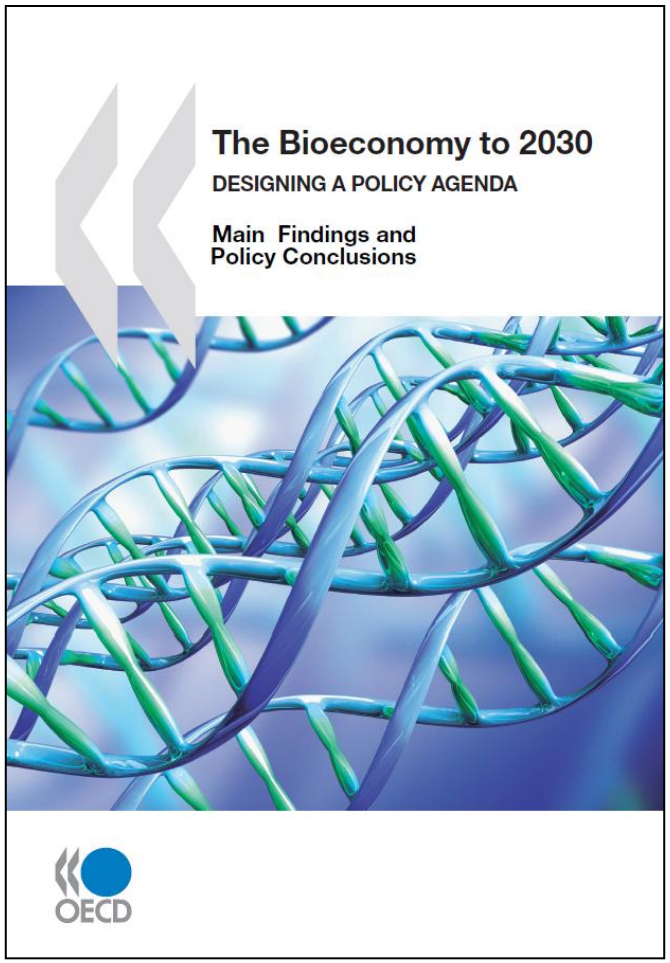
매개요인/촉진자



국가/정부/정치


• 국가지원연구
• 상품화
• 신규 시장 창출
연구개발 지원
시장화 / 사유화
규제완화/ 독점허용
공공조달/ 구매
• 안전 규제 완화
• 특허
• 투자(투기) 붐 조성
• 공공기관의 구매
• 건강보험 적용

OECD Bioeconomy 2030



이데올로기, 담론, 서사

- 개인의 삶의 덕목으로서의 건강
-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강
- 100세 시대
- 항노화
-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
- 건강하고 자유로운 성
- 유전학, 생의학, 생명공학의 쾌거
- 융합 경제, 창조 경제, 미래 경제

이론적 질문들

- 생명/건강/웰빙 산업의 이윤은 착취에 의한 것인가 강탈에 의한 것인가?
- 생명/건강/웰빙 산업이 생산하는 가치의 성격은 무엇인가?
- 개인의 생명/건강/웰빙 욕망 추구는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욕망의 주체는 단지 상품 소비의 주체로 호명될 뿐인가, 능동적 의미 창조 및 변형의 주체로 거듭나는가?
- 끊임없이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되는 생명/건강/웰빙에 대한 욕망 지층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연구 목적

- 한국의 생명, 건강, 웰빙산업의 실태와 구조 파악
  - 상품 생산 종류, 매출 규모, 이윤율 등
- 한국의 생명, 건강, 웰빙산업의 축적 전략 분석
- 한국의 생명, 건강, 웰빙산업과 자본의 전략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 축적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생명, 건강, 웰빙산업의 개념, 범위, 이윤 축적 매커니즘 등에 대한 문헌 연구
- 한국의 생명, 건강, 웰빙산업 영역별 실태 파악
- 한국의 생명, 건강, 웰빙산업의 축적 전략에 대한 기초 분석

줄기세포 ▪재생의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 규 진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재생의료란 무엇인가?

재생의료(Regenerative medicine)란 "인간의 세포와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의료를 말한다." 재생 의료의 목표는 이전엔 회복이 불가능했던 조직이나 장기들의 신체 고유의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거나 손상된 조직을 교체함으로써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는 것이다. 본래, **재생의료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화된 혹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조직 및 장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기대되는, 줄기세포가 재생의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cf.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유전자, 세포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의약품을 통칭하는 것임. 즉, 엄밀하게 따지면, 줄기세포 치료제가 바이오의약품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유전자 치료제가 재생의료의 범주에 들어오기는 어려움.

Regenerative Medicine, 2008, 3(1), 1–5 [47] 참조

한국 줄기세포 굴곡의 서막, 황우석 사태

- 합성의약품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려면 정부 또는 기업이 기초의약학 분야에 대해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함. 제약기술면에서 선진국들을 따라잡기는 어려움.

- 2000년대 들면서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의약분야의 수익률이 타 업종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정부 및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짐. 합성의약품 분야와 달리 중소 벤처기업도 기술만 있다면 뛰어들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배경은 상업적 동기가 과도해질 경우 줄기세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가능성이 컸음. 결국 학계, 정부, 기업의 근시안적이고 상업적인 접근은 통제할 수 없는 거품을 양산했고, 급기야 '황우석 사태'를 일으킴.

이명박 정권 재생의료 정책

- 황우석 사태 이후 근본적인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배아줄기세포 대신 성체줄기세포로 연구와 투자가 이동됨.

- 2009년 10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자가유래 세포치료제는 연구자 임상 또는 임상 1상 종료 후, 2, 3상 조건부 품목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대표발의 함. 안전성 평가만 되면 효과는 나중에 검증하고 일단 팔 수 있게 하라는 것임. 이때만 해도 식약처는 황우석 '세계적으로 의약품 허가 규정에 임상시험을 면제한 경우가 없는 점, 자가 줄기세포치료제라 할지라도 체외에서의 배양을 거쳐 대량으로 투여되므로 안전성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현재까지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이고 전 세계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섬. 2011년 9월 16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줄기세포 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방안 보고회'에 직접 참석해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다"며 식약처(당시 식약청)에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함.

- 결국 2012년 3월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고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가세포치료제의 연구자 임상시험 자료 또는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 임상의 안정성 자료로 갈음해주며 규제완화로 방향을 틈.

박근혜 정권 시기 재생의료 정책

-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버림.

-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

> ○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

- 기업은 꿩 먹고 알 먹는 셈. 사람에게 처음 써보는 것인 만큼 가장 많은 사고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상 1상 안전성 평가가 연구자가 책임지는 형태로 확대되고, 이 결과를 바로 자신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써먹을 수 있음.

-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과대학이 독립적 기술지주회사를 갖고 이를 통해 영리자회자를 두어 투자자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바이오기업의 직간접적인 후원이 병원과 의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

- 특히 6차 투자활성화대책이 강조하고 있듯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특허와 인센티브가 연구자에게 제공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짐.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의과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만든 영리자회사의 스톡옵션까지 교수(의사)에게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이명박근혜 시대의 줄기세포 치료제 승인 현황

전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승인 현황

구 분	국내 품목허가				해외 품목허가	
	하티셀그램-AMI	카티스템	큐피스템	뉴로타나-알주	프로키말	홀로클라
허가년월	2011.7	2012.1	2012.1	2014.7	2012.5	2015.2
제품사진						
제조사	파미셀	메디포스트	안트로젠	코아스템	(美)오시리스 테라퓨틱스	(伊)키에시 파르마슈티치
원재료 세포	자가 골수 줄기세포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	자가 지방 줄기세포	자가 골수 줄기세포	동종 골수 줄기세포	자가 각막상피 줄기세포
적응증	급성심근경색	무릎연골결손	크론성 누공	루게릭병	급성 이식편대 숙주병, 크론병	각막 윤부 줄기세포 결핍증
희귀약	X	X	○	○	○	○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산업은행 재작성

Korea okays stem cell therapies despite limited peer-reviewed data

South Korea is positioning itself in the vanguard of stem cell commercialization, with three adult stem cell treatments approved in the country over the past eight months. Yet, although officials inside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maintain that the therapies have b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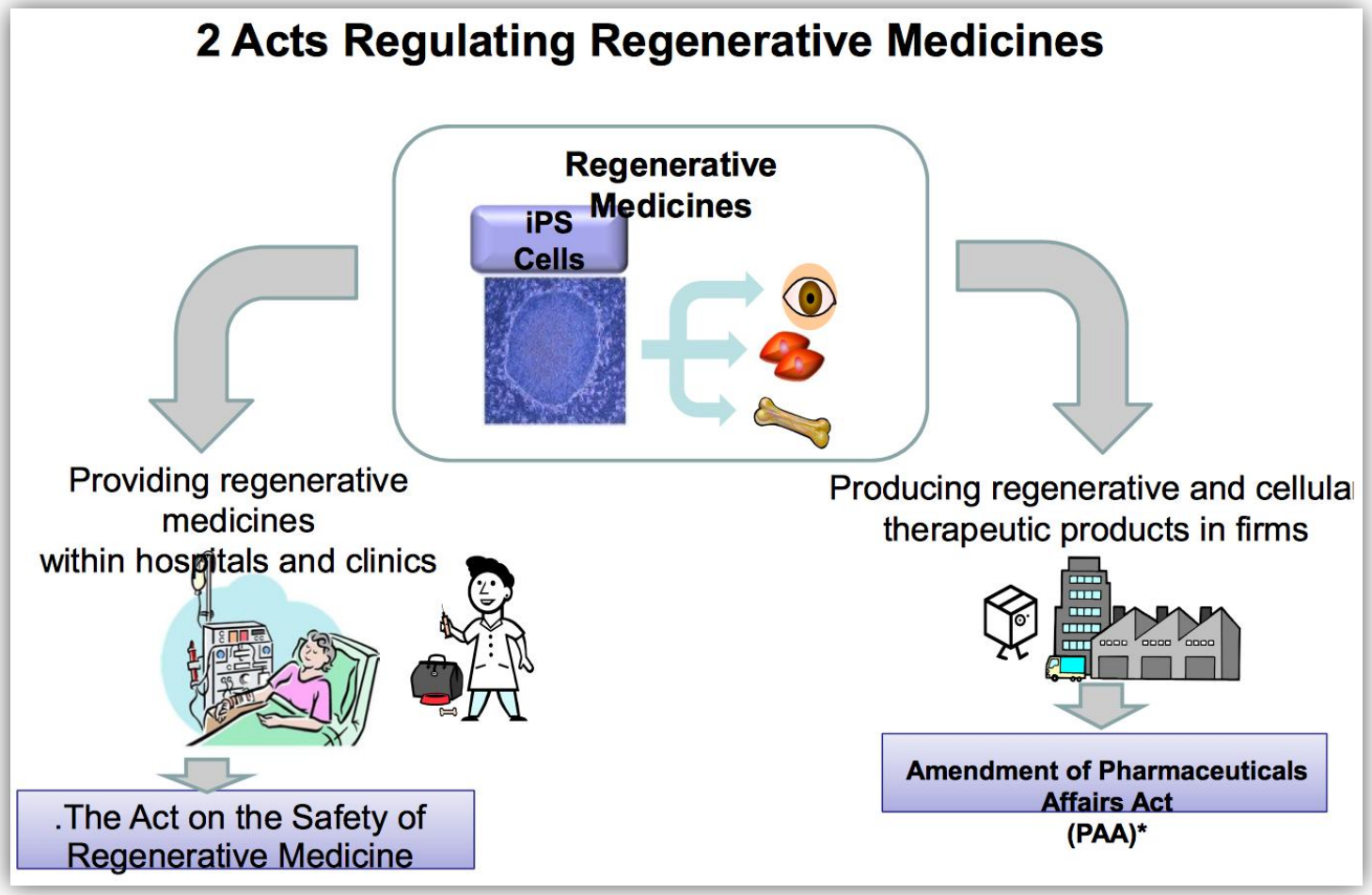
Cartistem's results look the most promising. In an 89-person Korean clinical trial, 26% more people who received the Medipost treatment experienced an improvement in knee function on a widely used cartilage repair assessment scale compared with those who underwent

are now gathering more long-term follow-up data on the patients for publication." Similarly, Anterogen spokesperson Kim In-ok says that the company i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 journal article based on findings presented at last year's Europ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 한국의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의 허술함을 지적한 네이처 메디슨 (Nature medicine) 기사 2012년 3월.

한 ▪ 일 간 줄기세포 치킨 게임이 시작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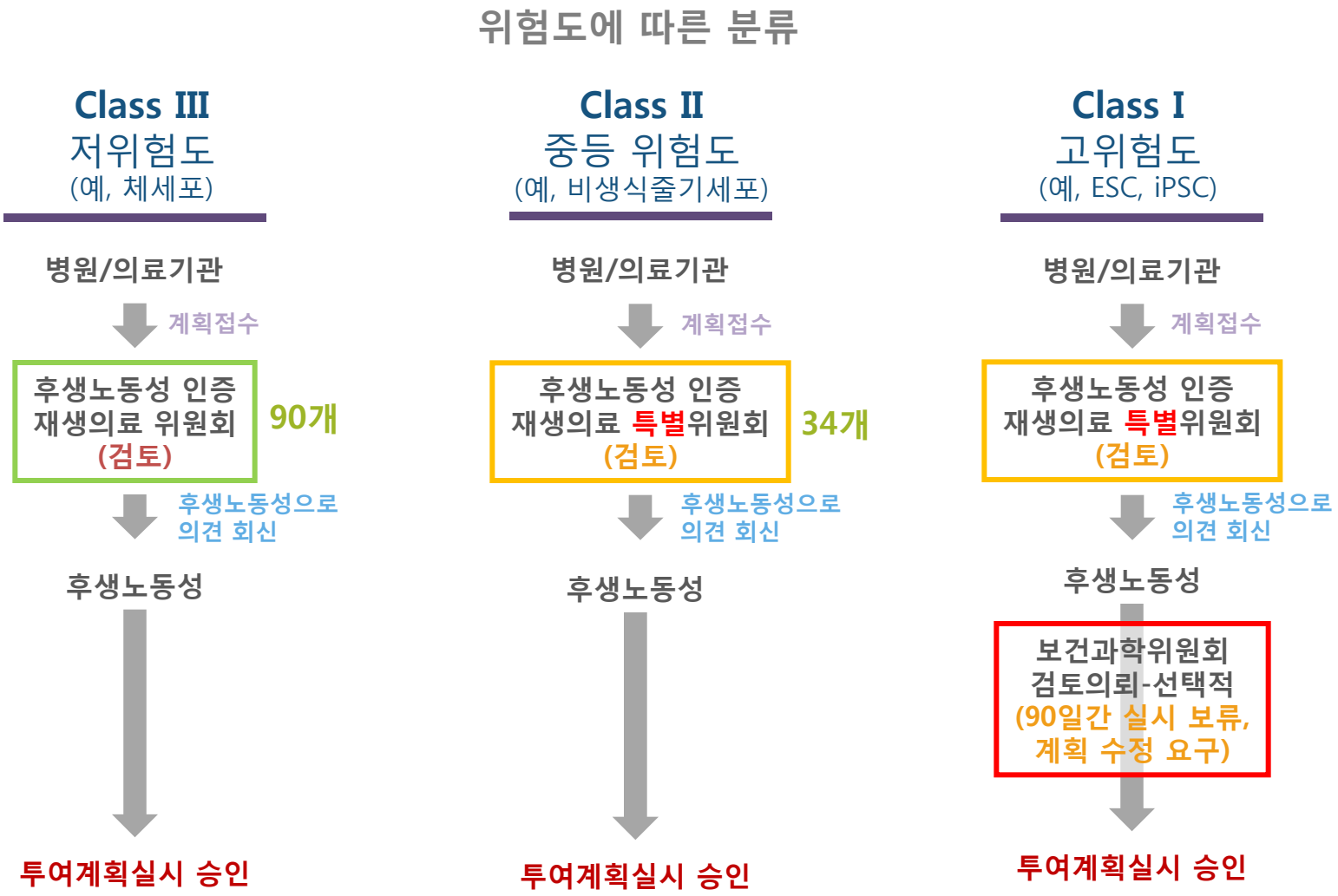
: 아베의 '세번째 화살'(경제성장전략)을 타고 2013년 5월 두 개의 법안 통과



재생의료등의 안전성 확인에 관한 법률

재생의료촉진법
: 약사법 개정 (조건부 허가, 시판후 유효성)

일본 재생의료등의 안전성 확인에 관한 법률



투여계획 실시 승인 현황(2015년 12월 30일 현재)

再生医療等安全性確保法の施行状況について

（平成27年12月31日現在）

（１）認定再生医療等委員会

委員会の分類	認定再生医療等委員会の件数							合計
	北海道	東北	関東信越	東海北陸	近畿	中国四国	九州	
特定認定再生医療								
認定再生医療等								

※第３

（２）

許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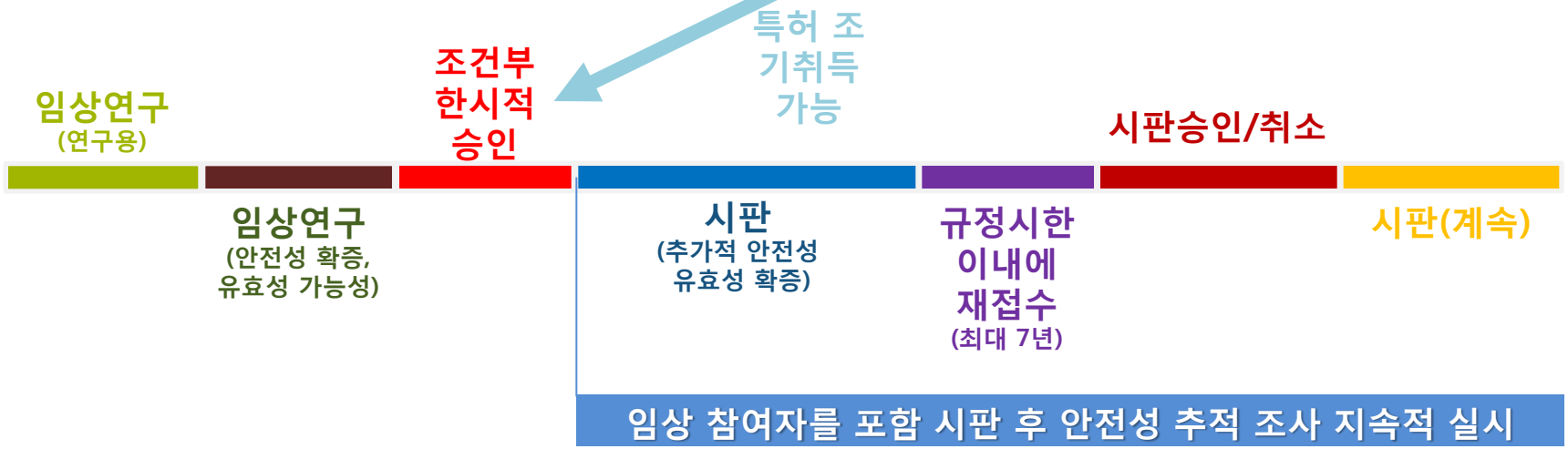
（３）再生医療等提供計画

再生医療等の分類	治療・研究の区分	再生医療等提供計画の件数							合計
		北海道	東北	関東信越	東海北陸	近畿	中国	九州	
第１種再生医療等提供計画	治療	0	0	2	0	0	0	0	2
	研究	0	1	3	3	2	1	0	10
第２種再生医療等提供計画	治療	5	0	15	1	8	0	6	35
	研究	0	0	8	5	6	4	2	25
第３種再生医療等提供計画	治療	94	125	1,020	305	454	177	281	2,456
	研究	0	0	29	5	2	1	5	42
合計	治療	99	125	1,037	306	462	177	287	2,493
	研究	0	1	40	13	10	6	7	77

일본의 새로운 약사법 개정 내용 (PMD Act)

◆ 구 약사법 (PAA, Pharmaceuticals Affairs Act)

◆ 개정법 (PMA Act, Act o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재생의료 규제개혁 추진 계획

: 2015년 11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도자료

② 첨단재생의료제품이 신속히 적용되어 국민의 건강수준이 높아집니다.
- 첨단재생의료 제품의 병원내 신속 적용 -

- **(현행)** 재생의료제품의 기술수준은 높으나 특성에 맞는 관리제도 미흡으로 신속한 임상 적용에 한계 * 전세계 품목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6개중 4개가 한국
- **(개선)** 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등 활용가이드라인 마련, 재생의료법 제정을 통한 관리체계 정비(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도입 등)

⇒ **(개선효과)** 희귀·난치환자의 첨단재생치료 기회 확대 및 재생의료산업 성장 촉진
* 세계 줄기세포시장 '18년까지 1,177억달러 성장 전망

〈 해외사례 : EU 〉

◈ 첨단치료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에 대해 시판 승인 전 병원 내에서 의사책임 하에 제한적으로 환자 적용 허용(Hospital Exemption)

- 우리나라는 재생의료 특성에 적합한 관리제도가 부재하며, 인허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신속한 환자적용과 제품 개발이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등 활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향후 병원내 신속적용제도(Hospital Exemption) 도입*을 포함한 '재생의료법'을 제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

정책·행정

줄기세포 정책방향 길을 잃다

의료법과 약사법 사이 방황…이해관계 복잡, 교통정리 시급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다른 기사 보기

송고시간 : 2015-12-09 06:22 프린트 이메일 기사목록

최근 국회에서 다소 이색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바로 그 시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자리를 마련한 '줄기세포치료제 활성화 간담회'가 열렸다.

- **안홍준 의원의 경우, 의사의 재량 하에 줄기세포 시술을 대폭 허용하는 병원내 신속적용(Hospital Exemption) 제도를 주장하고 있음. 병원 및 의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추정.**
- **장정은 의원의 경우, 재생의료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안전성만 확인되면 시판 허가해주겠다는 것임. (식약처가 깐깐하게 개입할 것을 우려했는지) 별도의 기구를 통해 추진, 허가, 관리하겠다는 것임. 유효성은 어떤 단계에서도 검토되지 않으며, 환자관리 추적의 의무도 없음.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심의 자체가 면제됨.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과 정부 및 복지부의 이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춘 것으로 추정됨. 2016년 2월 1인 법안 발의된 상태.**

➔ **안홍준 의원 안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거나 장정은 의원 안으로 수용될 수 있을 듯.**

2016년 2월 1일 발의된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첨단재생의료 진흥원

첨단재생의료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면제도 가능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 일부 장기추적

정책심의위원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치 ← 보건복지부

모든 단계별로 책임 관할권이 분산/단절되어, 안전관리체계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높음

[현행 약사법]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 7-10년, >>>10억달러

- 비교적 엄중한 비임상 평가,
- 그나마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생산 공정(GMP) 기준을 다름

그나마 국제적 심사평가기준이 적용된 식약처 심사

↓ 5년이상 장기추적

재심사 평가

일관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관할

예상되는 문제점1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내 신속적용(Hospital Exemption) 제도가 차라리 유럽의 기준에 따른 것이면 모르겠으나, **과거 일본처럼 무분별한 허용일 가능성 큼.**
- 유럽의 병원내 신속적용 기준은 결코 간단하지 않음. 아예 기본 정의에 Industrial production / Non routine base / Single individual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영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는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로 사용이 허가된 경우는 덴마크 1개, 네델란드 5개, 독일 17개이고, 영국, 프랑스 등 다른 27개 유럽국가에서 이 제도로 허가받은 재생의료제품은 없음.
- 그나마 허용된 제품들도 이미 미국 등에서 십 년 넘게 사용하여 효과와 안정성 … 연골세포 이식술이 대부분임.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28.3.2014
COM(2014) 188 fin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of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nd amending Directive 2001/83/EC and Regulation (EC) No 726/2004

- 유럽위원회는 이 제도가 적용된지 10년된 시점인 2014년에 평가서를 내면서 **"Hospital exemption에 의한 사용이 광범위하게 될 경우 정규 시판 승인신청을 포기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적절한 임상시험 없이 환자에게 광범위 하게 투여할 경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각 기관별로는 소수의 환자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수집, 국가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의적으로 평가함.**

벌써부터 설레발치고 있는 요주의 인물

'라정찬 복귀'로 5년만에 재현되는 줄기세포 규제 적절성 논란

입력시간 | 2015.11.17 14:51 | 천승현 기자 sh1000@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6 공유하기 1 트윗 1 댓글 BAND

네이처셀, 日 협력병원서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승인
식약처 "일본서 제한적 시술 허용..국내 허가 신청 취하"
5년전 알앤엘바이오 무허가 의약품 논란 재현 조짐

한국서 미허가 줄기세포

알재팬·니시하라클리닉 '버거씨병

식약처 "안전성·유효성에 개선없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국

국내에서는 희
뤄진 것이다.

11일 바이오
질환을 줄기세

이에 따라 니

라정찬 "치료허가까지 단 두달..日 줄기세포 규제완화 실감"

뉴스1

이영성
2015-11-11

공유

"마침일본에서 재생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줄기세포치료 허가·처방에 대한 법적 제도가 정비되고 간소화돼사용을 위한 허가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우리나라에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 받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추천서가 일본 법인 협력병원이 일본당국으로부터 버거씨병에 대해 치료허가를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니시하라클리닉에서 단독 처방하게 되는 줄기세포치료제는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바스코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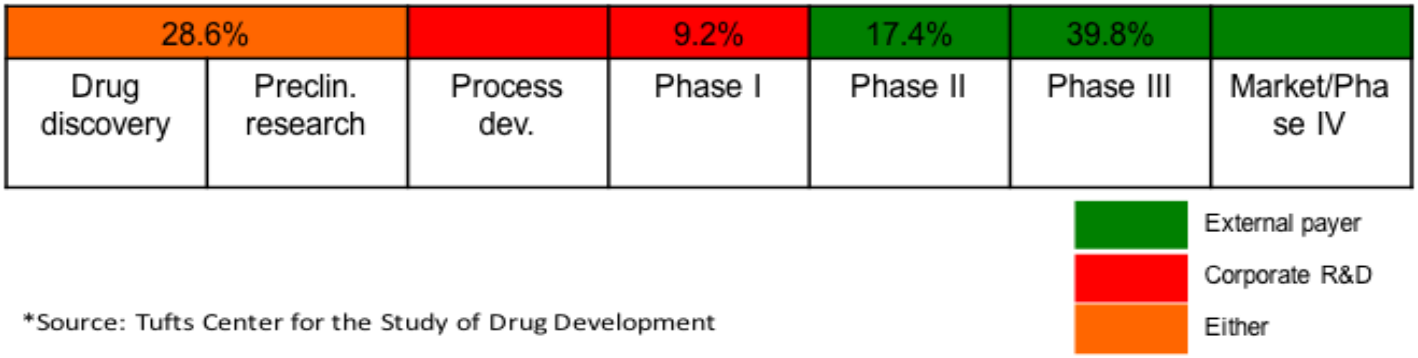
이번 일본내 치료허가는 "바스코스템에 대한 국내 임상2상까지의 연구결과와 관련 논문들을 토대로 승인이 이뤄졌다"고 라 원장은 소개했다.

이 이

혈성

예상되는 문제점2

57% savings for industry=57% added costs to patients and taxpayers



- 일반적인 제약단계를 보면, 전임상에서부터 임상1상까지 전체 개발비용의 40%가 들어가고, 임상 2상에서부터 시판 후 추적관찰까지가 60%가 들어감.
- 이미 2015년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연구자임상 1상을 상업임상1상으로 갈음해줌. 이번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의 골자가 "안정성만 확보되면", 즉 임상1상 끝나면 시판을 허가해주는 것인데 이러면 줄기세포 업체는 사실상 큰 돈 안들이고,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것임.
- 환자입장에서 보면, 유효성 평가를 하는 임상2상은 원래 환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임상시험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짜내지는 임상시험 참가에 대한 적절한 사례비를 받으며 하는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거꾸로 환자가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시험약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이러한 유인은 얼마든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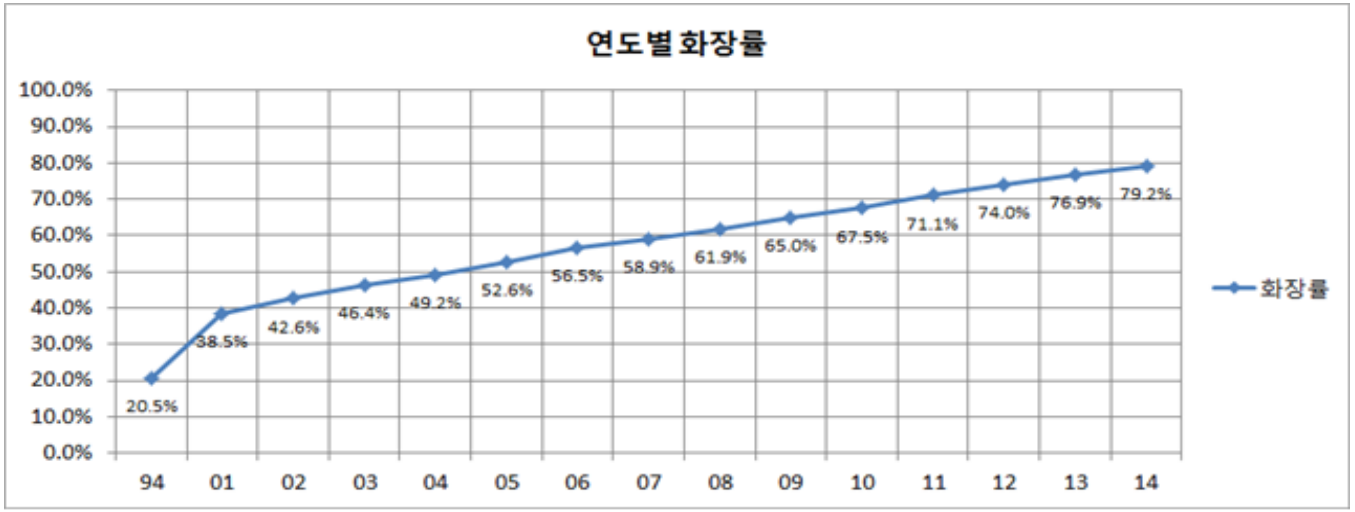
예상되는 문제점3

- 치료제 개발에서 성공여부는 임상 2상이 좌우함. 그런데 이 임상 2상 단계의 성공률이 가장 낮음. 대부분 안전성 입증보다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시판허가를 못받는 것임.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본과 한국의 규제완화에 왜 세계 줄기세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이해할 수 있음.
- 이는 상당한 연구윤리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기도 함. 가장 확실한 유효성 평가는 이중맹검조건임. 즉, 맹검 조건 하에 위약 내지 대조약을 받는 대조군이 설정된 시험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면 위약 및 대조약을 투약하는 것 시험 자체가 차단됨. 즉, 투약 자체의 효과만을 평가할 수밖에 업는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경우 실제 약의 효과가 지불에 대한 기대에 따라 placebo effect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음. (Doug Sipp, RIKEN, Nature Medicine 2013).
- 실제 최근 심혈관 질환 및 뇌질환 등 주요질환에 대한 세포치료 메타분석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중맹검 실험과 같은 엄격한 임상 설계를 통해 시행한 임상시험의 경우 세포치료제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시판 후 유효성에 대한 평가 의무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 추적관찰 또한 의무화하지 않음. 이럴 경우 기업은 유효성에 있어서 negative 결과를 축소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이는 시판후 엄격한 유효성 평가와 장기추적을 의무화 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임.)

예상되는 문제점4

- 이미 많은 국고가 줄기세포 산업에 들어가고 있음. 이명박 정부시절 2012년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해 2014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바이오헬스 미래신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여 2015년에만 총 3,376억원을 정부 주도로 투자함.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제14조(첨단재생의료의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국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신기술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까지도 우려해 볼 수 있음. 사실상 한국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일본의 정책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은 시판허가를 받은 두 제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승인했음.
- 일본에서 허가된 두 제품의 경우 예상되는 표준치료시 각각 약 14000엔(1억 5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됨. 즉,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연령 및 조건에 따라 10~30%의 자가부담을 하게 되므로 환자는 약 1천 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일본에게 뒤처지고 있다며, 연일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데, 아직까지는 차마 언급하고 있지는 못하나 줄기세포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도 건강보험 적용까지도 잡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웰다잉의 한국적 맥락



연명치료중단(호스피스)?
소박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
웰다잉 강사지도사?
죽음체험?
-> 성찰성의 문제

Quality of death 2015, 한국

Indicator scores

	Rank / 80	Score / 100	Data	Unit
SUPPLY ENVIRONMENT	**18**	**73.7**		**0 - 100 where 100= best and 0=worst**
1) PALLIATIVE AND HEALTHCARE ENVIRONMENT	**20**	**55.5**		**0 - 100 where 100= best and 0=worst**
1.1) Healthcare spending	31	43.9	7.9	% of GDP
1.2) Presence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led national palliative care strat	=8	75.0	4	EIU rating
1.3) Availability of research-based policy evaluation	=7	75.0	4	EIU rating
1.4) Capacity to deliver palliative care	34	8.7	5.6	%
2) HUMAN RESOURCES	**13**	**71.2**		**0 - 100 where 100= best and 0=worst**
2.1) Availability of specialised palliative care workers	=4	75.0	4	EIU rating
2.2) General medical knowledge of palliative care	=7	75.0	4	EIU rating
2.3) Certification for palliative care workers	=1	100.0	1	EIU rating
2.4) Number of doctors per 1,000 PC-related deaths	27	46.7	559.2	Doctors per 1,000 non-accidental deaths
2.5) Number of nurses per 1,000 PC-related deaths	20	40.1	1461.2	Nurses per 1,000 non-accidental deaths
3) AFFORDABILITY OF CARE	**=6**	**87.5**		**0 - 100 where 100= best and 0=worst**
3.1) Availability of public funding for palliative care	=7	75.0	4	EIU rating
3.2) Financial burden to patients for available palliative care	=1	100.0	5	EIU rating
3.3) National pension scheme coverage of palliative care services	=1	100.0	3	EIU rating
4) QUALITY OF CARE	**=20**	**81.3**		**0 - 100 where 100= best and 0=worst**
4.1) Presence of monitoring standards for organisations	=1	100.0	1	EIU rating
4.2) Availability of painkillers	=1	100.0	5	EIU rating
4.3) Availability of psycho-socio support for patient and families	=1	100.0	3	EIU rating
4.4) Presence of Do not resuscitate (DNR) policy	=29	0.0	0	EIU rating
4.5) Shared decisionmaking	=10	75.0	4	EIU rating
4.6) Use of patient satisfaction surveys	=16	50.0	3	EIU rating
5) COMMUNITY ENGAGEMENT	**14**	**65.0**		**0 - 100 where 100= best and 0=worst**
5.1) Public awareness of palliative care	=14	50.0	3	EIU rating
5.2) Availability of volunteer workers for palliative care	=1	100.0	5	EIU rating

장례문화는 어디로?

-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장례문화 간소화(1969)
  - 정부의 장례문화 규제는 현재진행형
- 장례식장의 탄생
  - 93년부터 본격화(김시덕, 2005)
- 품위있는 장례문화는?
  - 매장에서 화장으로
  - 납골(봉안) 중심에서 자연장으로
-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증화(2013년)
  - 81년 염사제도 도입, 93년 폐지 후 민간자격증
- 장례식장, 용품 가격의 전산화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장례의 스타벅싱?맥도날드화?

- 장례의 합리화와 표준화는 개인이 장례산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만듬
  - 통제의 상실을 보충하기 위한 협상으로서 기념사나 고별비디오 등 기존에 없던 절차나 과정을 도입
- 장례의 의미 실종
  - 왜 3일장? 죽음과 죽은 자를 보내는 과정의 탈맥락화, 규격화 및 상품화, 합리화(효도의 깊이와 내용의 대체)
- 웰다잉에서의 장례
  - 유언장 미리쓰기, 일상복의 수의, 자연장, 연명치료중단 등
  - 정부, 웰다잉 관련단체, 웰다잉 상품의 범람
- 해외 장례(우주장, 다이아몬드장...)

새로운 장례?

- 협동조합(작은 장례식)
- 공공상조회사(화성시)

-> 비용을 낮추는 것에 중심

- 웰다잉으로서의 장례는 남겨진 자와 떠나는 자 사이의 관계의 문제

 - 어떤 방식으로 관계맺을 것인가? 혹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전화번호	02-2002-8444	팩스번호	
주소	[031 - 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적십자병원 (평동)		
홈페이지	www.rch.or.kr/seoul/funeral/		

운영형태 | 가격정보 | 교통안내 | 참고자료

전부열기 ∨ 전부닫기 ∧

시설사용료 항목	임대내용	요금(단위:원)	일수	선택
빈소임대료(㎡)	105㎡/1실/시간당	18,000	1	☐
빈소임대료(㎡)	148㎡/1실/시간당	25,000	1	☐
빈소임대료(㎡)	165㎡/1실/시간당	32,000	1	☐
안치료	시간당	3,000	1	☐
입관료	1회	300,000	1	☐
수시료	1회	100,000	1	☐

장사용품 분류	품명	규격/재질/원산지/생산지/제조방법 등	판매(사용)가격 (단위:원)	선택
	오동 0.6치 관	오동/집성판	140,000	☐
	오동 0.6치 특관	오동/집성판	170,000	☐

아름라이프상조
핵가족 가족장

- 가족실속 가족장 185만원
- 가족실속 보급형 235만원
- 가족실속 고급형 285만원 〉
- 가족실속 수목장 285만원
- 가족실속 해양장 285만원
- 가족실속 최고급형 388만원

가족실속 고급형 285만원

HOME > 핵가족 가족장 > 가족실속 고급형 285만원

가족실속 고급형 정부화장장려 추천상품 ₩285만원 매장/화장

건전하고 저렴한 장례절차로 우리가족만의 아름답고 조용한 장례식을 추천합니다.

전화 한 통화로...전문가 친절상담>입종>고인이송>장례>화장/매장>장지>사후처리까지

핵가족이고 조문객도 100여명 전후 예상하고, 화장으로 모실 예정이며, 유골함도 필요하고 저렴하게 치르고 싶은데, 별도의 추가부분이 적었으면...
매장인데...수의도 좋은거 준비(100%삼베수의)해야 된다는데...
산소작업도, 인부도, 장비도...장지음식이나 장지에서 조문객도 맞이해야 하고...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한 고급형 장례

1. 입종 무료서비스 2. 리무진+버스/2대 3. 화장시/고급유골함 제공
4. 매장탈관시/횡대제공 5. 인력지원 총 8명 6. 아름다운 입관 연출

※금액대비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도가 제일 높은 실속형 상조서비스입니다.

24시간 접수상담가능

1644-7193

●채움350 명품형●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입관 및 염습	●조문객 관리사	●앰블런스
장례기간 1인 지원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2인	6인 / 각 10시간	관내 운구지원 (임종 전 사전요청)
●차량지원	●입관용품	●봉안함	●남자 상복
최고급 예식 리무진 및 최고급 예식 버스 차량 당 왕복 300km 지원	고급 오동관 채움 대마 가진수의 관보, 소창, 명정, 한지 등 종교에 따른 고급 규격품 지원	고급 봉안함 제공	검정예복 10벌 제공 양복, 셔츠, 타이 제공
			●여자 상복
			계량한복 10벌 제공
●제단장식	●빈소용품	●행정처리안내	●장지안내서비스
25만원 지원	향,초,위패등 일절제공	화장시설 예약 각종 행정절차 서류절차 안내	전국 납골당, 묘지, 석물, 잔디 컨설팅
			●사전가입혜택
			15만원 할인

주제 2. 안티에이징의 사회
: 불로장생 신화의 '시장화'를 거들떠보기

문현아

“노화(Aging)는 질병이다.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이자 삶의 위험요소다”

< Anti-aging, 항노화에 대한 반론 >

- 고령사회로 진입, 수명의 연장 = 건강한 젊음의 유지? 삶의 질 보장?
- 노화 치료, 노화 예방 = 안티 에이징?
- 삶의 마지막 시기에 겪는 쇠약함을 단축하는 것이 노화 접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닐까?
- 노화의 극복은 신화 아닐까? “늙어 병들어 죽는 건, 오히려 인간다운 것이 아닌가? “

‘치열한 안티에이징 보단 우아한 웰에이징을 택한 프랑스 여성들의 삶의 지혜?

- 미레유 길리아노(루이비통 계열사 뵈브 클리코의 전 CEO)

안티에이징에서 웰에이징으로?

healthy aging, active aging, positive aging, successful aging, aging well, productive aging ….

- 피부 관리 : 안티에이징 화장품
- 염색 : 하느냐 마느냐
- 건강 보충제/ 보조식품 : 호르몬치료 등
- 성형과 '몸 관리'의 간극?
- 더 건강, 더 쌩쌩(인간 증강enhancement)의 문제) : 우리에겐 늙을 권리와 자유가 있는 건가?
-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그 '누구'로 만들어가는 삶? 나는 누구인가? "Aging is about me and me alone"

안티에이징 산업의 성장 = (공공성)복지정책의 후퇴, 우연의 일치는 아닐테지?

❖ Profits of "Medical- industrial complex"

- "젊어져야 한다고 압박하는 자본"
- 사회,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화를 통한 젊음 유지 전략?
- Biomedicalization

❖ Social and Gender Aspects of Anti-Ageing Culture

- "착취하고 억압하며 젊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본"
- 경제'부담' 고령인구 위기담론의 효과? 자본이 싫어하는 '늙은 육체'?
- Biopolitics : 생명은 과정이 아니라 '조절'가능한 '대상'

어떻게 진행?

i. 관심있는 '회원'들과 만난다 ^^
ii. 관련 문헌을 읽고 기초자료 조사
iii. 자료 번역 및 논의를 국내 소개하여, 관련 쟁점 사회화 혹은 담론화, 또는 언젠가 쟁점이 될 그날을 위해 묵묵히 연구...
iv. 안티에이징 제품을 쓰거나 '치료'를 받는 사람들 물색.물색되어 연결가능하게 되면 심층면접 혹은 설문조사 진행. 물론 물색해도 연결되지 못하면 해외사례 번역 소개(해외에는 진행된 연구들이 약간 있음).
v. 철학적, 윤리적 담론의 근원과 연결해서 주제별로 심화

등등등...

참고문헌

- 황임경. 2015. “90년대 이후 한국의 항노화 의학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12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발표문. 8월 20-21일.
- 오버롤, 크리스틴, <평균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 김영범, 안재진 [공]옮김.서울 : 개마고원, 2005.
- Metzl, Jonathan. 2010. “Introduction: Why Against Health?”, Metzl, Jonathan M. and Anna Kirkland eds., *Against Health: How Health Became the New Morality*.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Neilson, Brett. 2006. “Anti-ageing cultures, biopolitics and globalization”, *Cultural Studies Review*, 12(2), pp. 149-164.
- Rockwood, Kenneth. 2016. “What can we expect of health in old age?” *The Lancet*, Volume 387, No. 10020, p.73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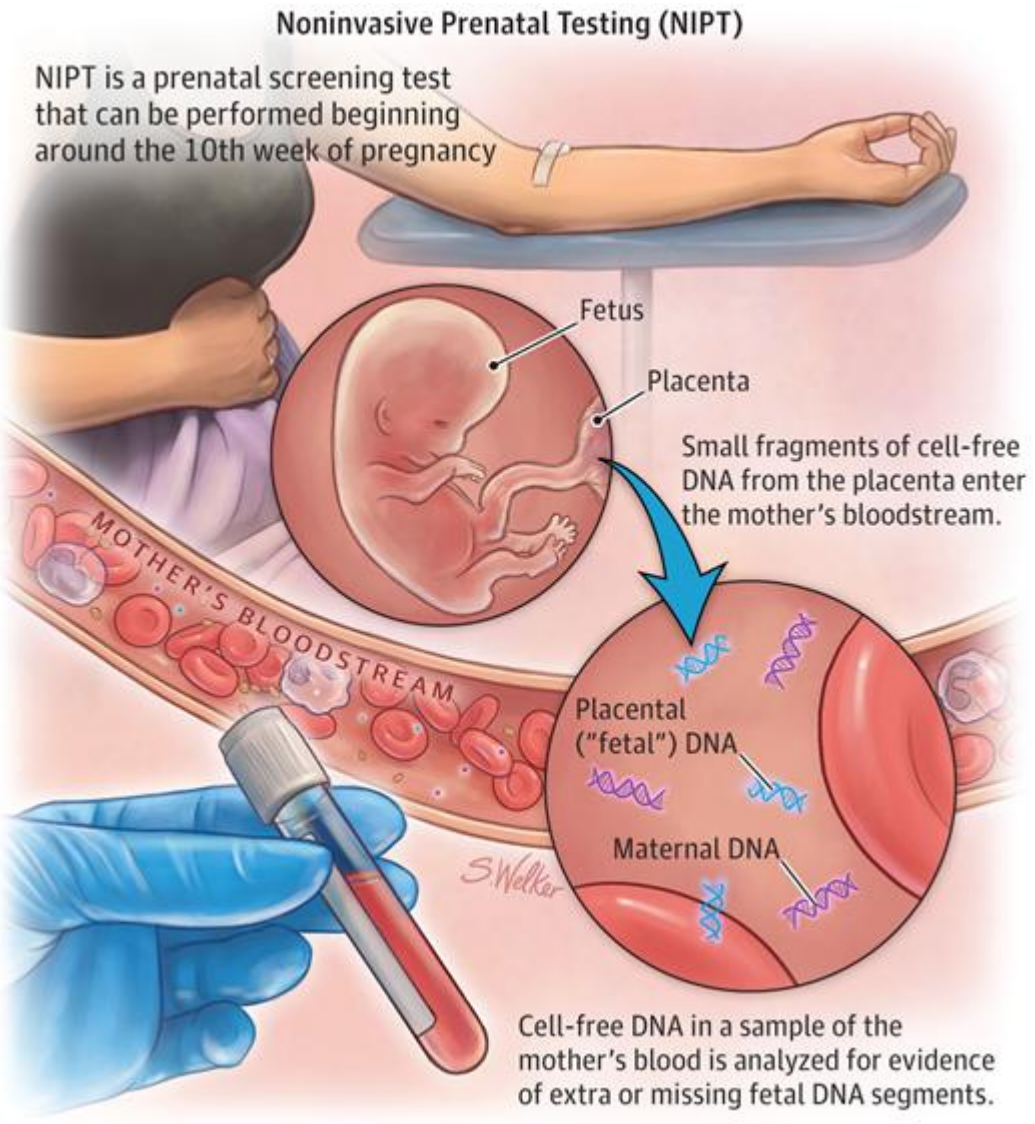
임신 출산, 재생산기술

윤정원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산전기형아검사

History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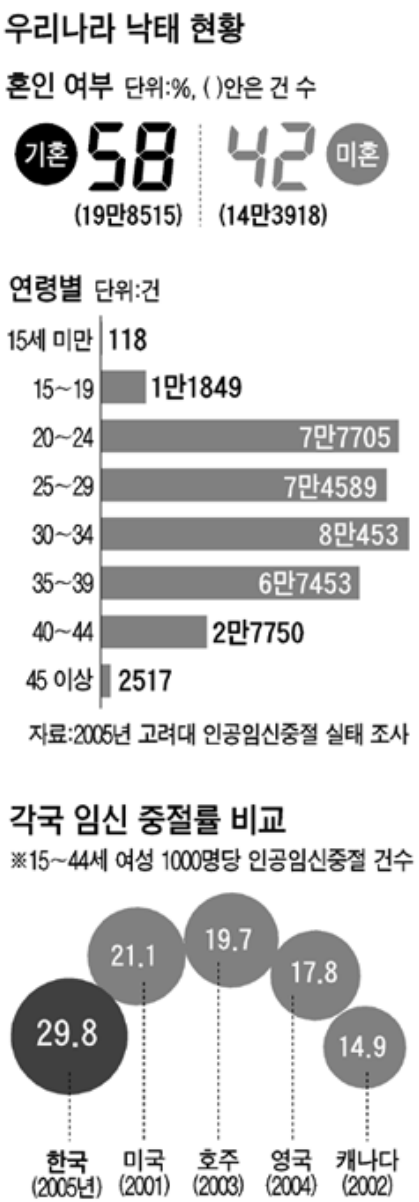
- 1966- amniocentesis
- 1970's- age alone
- 1980's
  - AFP
  - Triple screen- 72%
  - Quad screen- 79%
  - Penta screen- 83%
- 1980's- CVS
- 1990's –
  - First Trimester screen-
  - Sequential screen 90-94
- 2010's- Non-invasive pr



산전기형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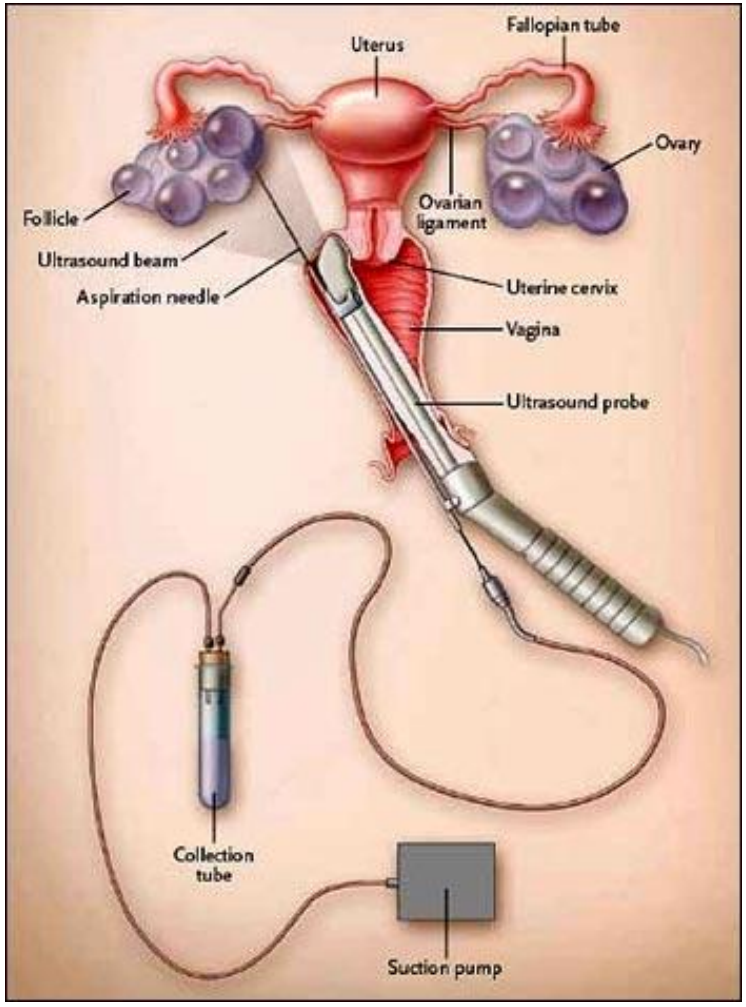
harmony
PRENATAL TEST
NIFTY
MaterniT21
PLUS
verifi
prenatal test
genesis genetics
percept
cell-free DNA prenatal test
panorama
natera prenatal screen
the IONA test
The first IVD product for non-invasive prenatal screening
progenity
Counsyl

산전기형아검사


우리나라 낙태 현황
혼인 여부 단위:%, ( )안은 건 수
기혼 58 (19만8515)
42 미혼 (14만3918)
연령별 단위:건
15세 미만 118
15~19 1만1849
20~24 7만7705
25~29 7만4589
30~34 8만453
35~39 6만7453
40~44 2만7750
45 이상 2517
자료:2005년 고려대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각국 임신 중절률 비교
※15~44세 여성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
29.8
21.1
19.7
17.8
14.9
한국 (2005년)
미국 (2001)
호주 (2003)
영국 (2004)
캐나다 (2002)

5분의 '삶'
의사 수입
MBCHD
분만
30만원
낙태
60만원

난자보존


Uterus
Fallopian tube
Ovary
Follicle
Ovarian ligament
Ultrasound beam
Aspiration needle
Uterine cervix
Vagina
Ultrasound probe
Collection tube
Suction pump

난자는 과학기술의 도구가 아니다
난자채취 진상규명
윤리위반 엄중문책

백혈병 앓은 여성이 냉동 보관 난자로 출산에 성공한 과정
❶ 2001년 당시 22세 나이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
❷ 항암치료 시작하기 전에 난자 7개 냉동 보관
❸ 전신에 방사선 치료받고 골수 이식 시행
❹ 폐전 상태가 된 자궁 기능 유지 위해 호르몬 치료
❺ 2008년 백혈병 완치 판정
❻ 2009년 결혼
❼ 2010년 냉동 보관 난자 해동해서 인공 수정 시도
❽ 2개 수정란 생성해여 자궁에 이식
❾ 2011년 7월 아들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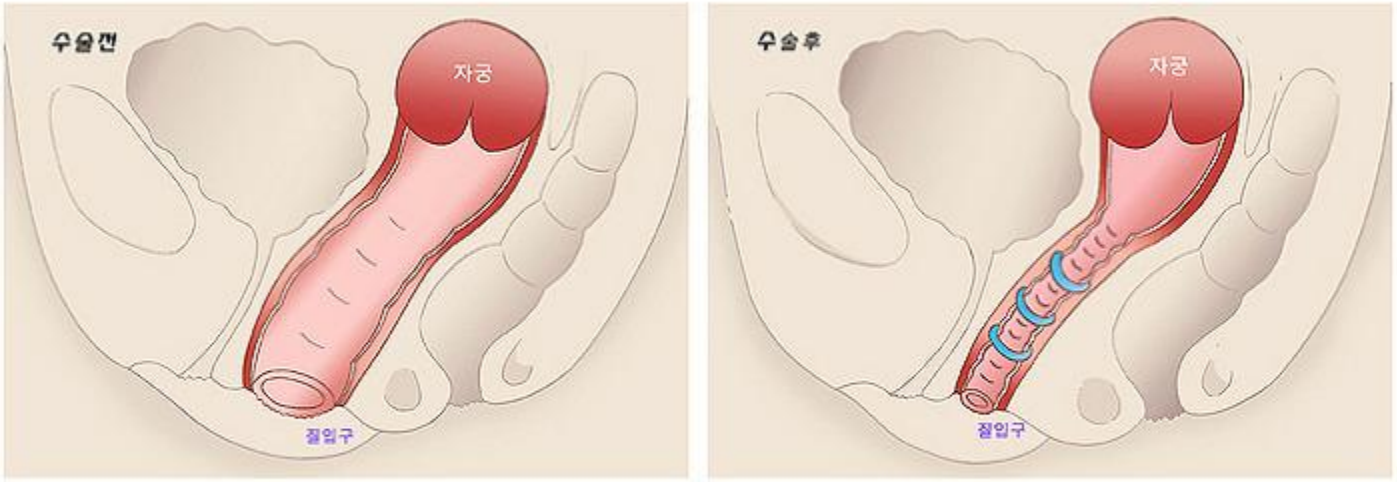
난자보존

'건강한 난자' 냉동 보관
KBS1
이정명 난자 보관 의뢰 여성 (34살)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건강한 아이 출산 확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난자를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의학(Sexology)

-성적 자기결정권의 강화인가 강요된 body image 인가

-성적 ㅈ



수술이 필요한

레이저 질매직탭 수술 전 후

상대방이 힘좀줘봐.. 조여봐..! 라고 말한다면?

질매직탭은 질점막층,질근막층,질근육층 3겹을 모두 360도로 입체적으로 탄력을 잡아주면서
질크기를 입구에서 자궁근처까지 좁혀주고 본인이 질에 힘을 안줘도 질매직탭자체의 강한
신축성 때문에 자동으로 조여주는기능이 있어서 약간의 힘만으로도 상대남성을 만족시켜줄수 있습니다.

니꺼가 작은거야 라고 말해야...

산부인과, 여성의학, 성의학..

- 굉장히 일상적이면서 기술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
- 기술 발전을 대중이 따라가는가, 대중이 수요를 만들어내는가

치아미백의 실태와 전망

김의동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치아의 변색

- 외적 요인- 커피, 차, 색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 담배, 불량한 구강위생
- 내적 요인- 유전적 요인(법랑질, 상아질 형성부전증), 치아형성기 섭취한 약물(tetracycline), 치수의 변화(주로 외상에 의함, 상아질의 과잉석회화), 근관치료시 치수잔사의 불완전제거
- 복합적 요인- 불소증, 노화

치아미백의 종류

- 생활치 미백-자가미백, 전문가미백
- 실활치 미백-단일치아미백, 주로 외상과 신경치료가 원인

치아미백의 특징

- 치아의 수 이상(과잉치, 결손치), 치아의 형태 이상(거대치, 왜소치, 기형치), 치아의 배열 이상(총생-덧니, 치간공극-틈) 등을 치료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심미치과 영역에서도 치간공극 치료와 함께 거의 기능과는 상관없는 철저히 미용에만 관련된 치료- 그 외 교정, 라미네이트, 크라운, 레진 충전 등이 있음
- “하얀 치아가 아름답다” , “하얀 피부가 아름답다”, “하얀 것이 아름답다?”- 문화적, 철학적 배경?

치아미백의 건강보험 적용

- 심미, 미용치료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
- 외상으로 인한 실활치 미백의 경우 제기 가능 : 예후의 불확실성, 보철과의 연관성, 보철비용과의 중복 문제로 보험적용은 쉽지 않음

치아미백의 특징

- 라미네이트와 더불어 부가세 부과
- 전적으로 미용, 성형 시술이라는 관점
- 부가세 신고의 번거로움-소규모 동네의원

치아미백의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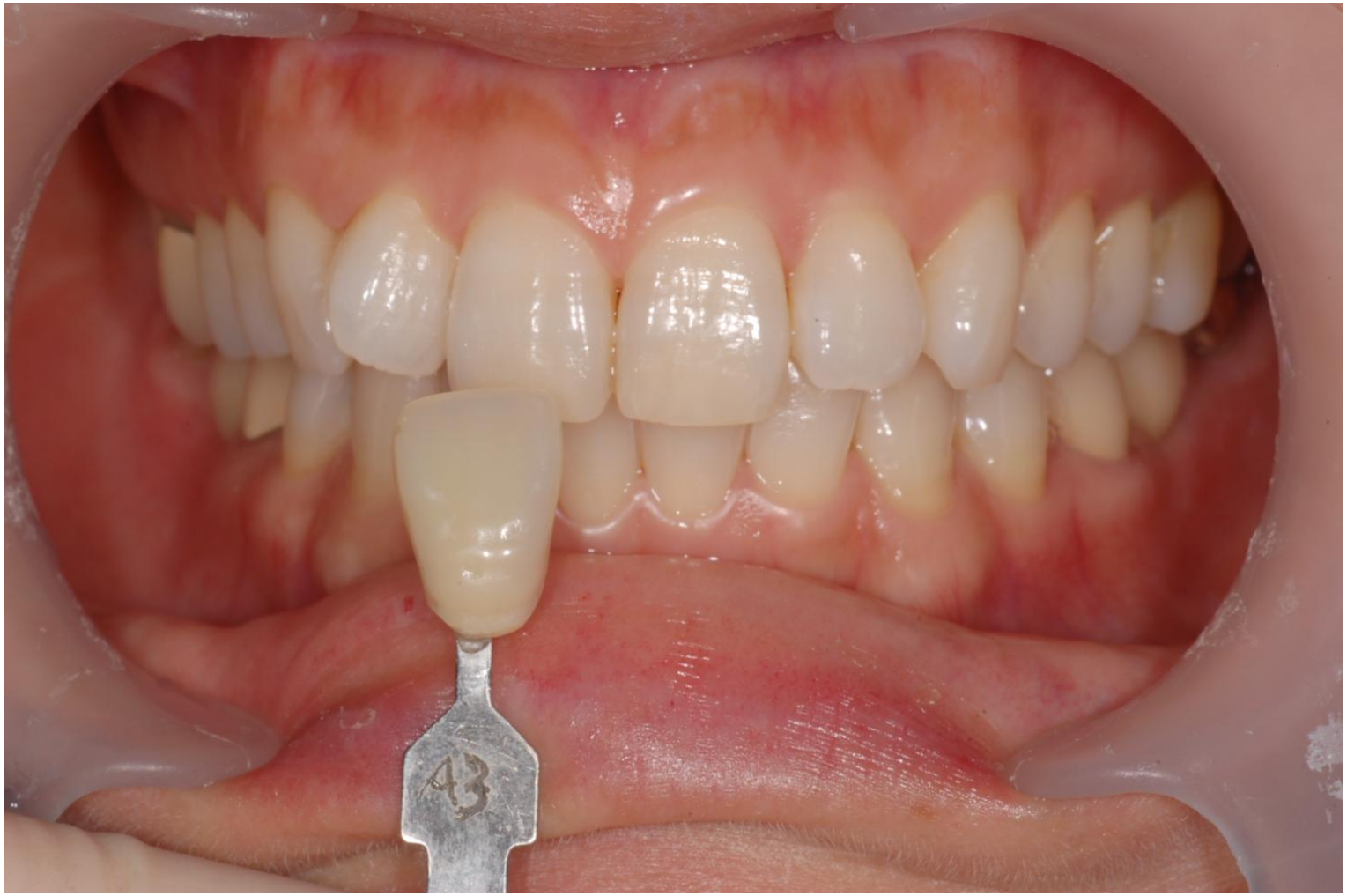
- 실활치 미백 : 20-40 만원 가량
- 생활치 미백 (자가미백, 전문가 미백, 스케일링 포함) : 40-80만원 가량

치아미백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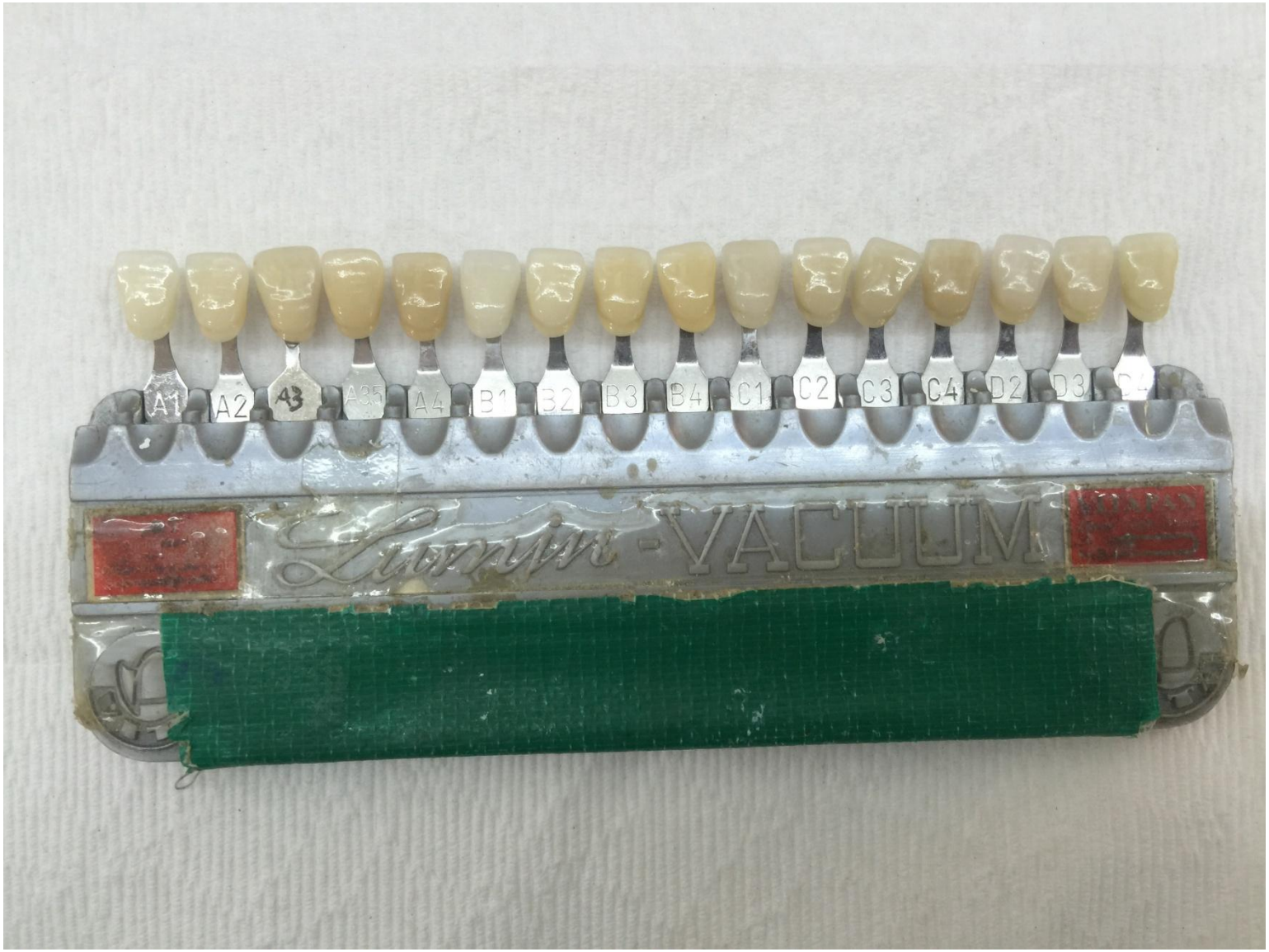
- 치과계 극심한 경쟁으로 치료비 하락
- 일부 대형치과 미끼상품의 하나로 전락
- OO치과 공업용 미백제 논란 등 환자 불안과 치과 불신 확대
- 붙이는 치아미백제, 바르는 치아미백제, 미백치약 등 관련제품증가 → 효과 미미, 관심도 하락

치아미백의 최신 경향

- 연예인 등에 의한 하얀 치아에 대한 욕망 자극
- 하얗게! 더 하얗게!! –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chalky white color 선호 경향
- 앞니 보철시 본인의 치아색보다 밝은 색 선호 : 노년층
- 항노화 치료의 대표적인 예의 하나
- 전적인 심미치료 → 경기에 민감도 높음


A3

A1


A1
A2
A3
A35
A4
B1
B2
B3
B4
C1
C2
C3
C4
D2
D3
Lumin-VACUUM

치아미백의 전망

- 부가세 부과로 소규모 동네의원 소극적
- 치아미백의 수가 하향평준화(대중화 기여?)
- 보험 적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 영리병원의 대표적 미끼 상품의 하나가 될 가능성
- 영구미백(라미네이트)의 증가 가능성
  → 과잉치료의 위험성
- 치아미백에 대한 관심, 선호도 점증
  → 의료기관간 미백치료의 양극화 심화